

	보도자료	2026. 5. 10.(일) 0시 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760-7510
		업무담당자	이현주	☎760-754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760-7514

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호응… “마음 편히 농사 지어요”

- 감귤 전정 가지 파쇄 지원 86.7ha 확대 추진…안전사고 제로화 달성 -
- 농작업 취약계층 현장 지원 강화…긍정적 반응 이어져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농작업 취약계층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‘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사업은 감귤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줄이고 농작업 취약계층과 소규모 농가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.
 - 농업기술원은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, ‘찾아가는 파쇄작업단’ 12개조 36명을 구성해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지원에 나섰다.
- 올해 파쇄 지원은 당초 목표인 80ha에서 86.7ha로 확대 추진됐으며, 파쇄작업단의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다.
 - 특히 농기계 사용이 어렵거나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과 독거여성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해 현장 만족도를 높였다.
 - 작업단은 파쇄작업과 함께 전정 가지 운반·정리 작업도 지원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, 피로 누적에 따른 2차

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.

- 사업에 참여한 한 농가는 “나홀로 고령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” 며 “전문 작업단의 수고와 지원 덕분에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”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이처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은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,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감귤 전정 가지를 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토양 비옥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.
-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“앞으로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,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